

게시판

동방대학원대학 수강생 모집 서울 동방대학원대학은 사회문예학과, 불교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 학생을 모집한다. 1년부터 4년과정까지 있다. (02)745-2141

대불어 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11월 26일~27일 김천 경북청소년수련관에서 '초발심으로 다시 서는 어린이 포교' 어린이 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또 주5일제 수업에 맞춘 생활포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051)864-4569

'아자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대한가족생활놀이연구소 '아자학교'에서는 사회통합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11월 27일 청성면 산계동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제6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당일 행사에는 친환경 유기농산물로 만든 떡과 술, 떡국이 제공된다. (050)5924-6007



비로자나 스카프 캠프 진각종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연합회는 2006년 1월 2일~4일까지 현대 성우 리조트에서 '하얀마음 하얀세상' 스카프 캠프를 개최한다(사진). 종단 지방교구 및 지부 십인당 중고등학교 청소년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십인당 주교의 추천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참가비 14만원. (02)942-0635-6

20면 상식 퍼즐 정답

남	가	일	몽				
대		산	수	화			
문	수	법	기	밀			
	불	어		린			
	부			다			
	축	지	인	루	광		
		파	고		하		



남양주 봉선사와 남양주사암연합회는 봉선사 경내에서 11월 13~18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 기간동안 담근 김장김치는 10~20kg들이 쌀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 500여가구에 전달됐다. 사진은 17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왼쪽 두번째)과 남양주사암련 소속 스님, 신도들이 배추에 속을 넣는 모습. 남양주=고영배 기자

아삭아삭~

김장도 담그고 이웃도 돕고

겨울이 시작될 즈음 동네잔치처럼 이뤄지던 김장 배추며 파, 무 등을 깨끗이 김치를 담근 뒤, 이웃사람들과 김치포기를 나누었다. 배추를 다듬는 어머니 곁에서 김치 속을 얻어먹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다. 중국산 남김치와 기생충 알 검출 파동까지 더해, 시먹는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 김치 만드는 법도 배우며 가족애를 확인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먹을 먹거리를 가족 구성원이 직접 준비하면서 사랑도 더 깊어질 것이다.

곳곳서 열리는 김장축제

●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 '2005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가 11월 19~27일 전주시 교동 전주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사랑의 김장 나눔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김장을 담가 가져가거나 선물을 할 수도 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후 1~3시 풍남원에서 '전통김장 담그기 시연'이 펼쳐진다.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락원과 양사재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참가비 3000원을 내고 반포기(1kg)의 김장을 담가 가져갈 수 있다. 유지권 생은 1000원에 500g을 담글 수 있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김치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반포기가 아니라 아예 김장을 다 끝내고 싶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집 김장담그기' 코너도 운영되고 있다. 사전에 주문하면 20kg의 김치재료를 준비해줄 뿐 아니라 무, 고춧가루, 파김치 등을 담글 수 있다.

또 동락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김장을 담가 보내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선물하세요' 행사가 마련돼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낼 수 있다. 택배와 포장, 사진 포함해서 5kg에 2만 5000원이다. (063)284-1126

● **실상사 유기농김장축제** 주말동안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김치를 담가보는 것은 어떨까. 하룻밤 템플스테이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손에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들려 있을 것이다.

남원 실상사에서는 11월 26~27일 '실상사 유기농김장축제 템플스테이'를 연다. 지리산 자락에서 키워낸 깨끗한 무공해 유기농 배추, 무, 파, 마늘 등으로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첫날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는 시간을 갖고, 사찰음식전문가 대안 스님의 '마음의 살까지 배우는 사찰음식' 강연을 듣는다. 또 깊어가는 가을 밤, 가족끼리 무릎을 맞대고 앉아 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와 먹거리를 다듬는다.

다음날에는 새벽예불과 출렁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전날 미리 준비해둔 양념으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한다.

김장축제 템플스테이에 참가할 가족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가족당 방배정을 해야하기 때문, 배추 가격은 5kg당 4만원이며 고무장갑

과 앞치마는 각자 준비해야 한다. (063)636-5399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담근 자비김치'를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12월 2~4일 개최한다. 광주지원은 매년 신도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재료들로 김치를 담가 광주서구청과 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왔다. 올해는 신도회가 해남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1000 포기, 파, 마늘, 무와 나주 공산 토굴에서 기른 고추 등으로 김치를 담근다.

2일~4일 매일 아침 10시 예불을 보고 대중이 모두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기 시작하며 행사기간 동안에는 점심과 저녁이 제공된다.

광주지원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 앞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합창제 '공심공제 돌아온 노래'를 11월 27일 오후 3시 광주 5·18 기념문화회관 민주홀에서 열 예정이다. 합창제 수익금은 김장김치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062)373-8801-3

● **'여주 팜스테이마을' 김장김치 담그기**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여주 팜스테이마을은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여주 팜스테이마을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김장을 담그고자 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김치 만들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1인당 2만원이며 양념김치 한 포기 1만원이 추가된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여주 팜스테이마을 사이트(famstay.inil.org)로 문의하면 된다. 010-3158-8901

이밖에도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오후 5시 평택 수도사에서 **전통사찰김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김치는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흥겨와 고기, 찹쌀,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내고 건강에 좋다.

이번 작품전시회에는 풍요김치, 갯김치, 갯김치, 솜바귀김치, 고추익척박지김치, 죽순김치 등 총 30여점의 전통사찰김치와 사찰김치를 응용한 김치오색전병말이, 김치인군만두 등의 별미요리 10여점이 전시된다. 또 행사장에서는 사찰두부, 인절미 등을 만들거나 숯불에 고구마를 구워 김치와 함께 먹는 시식행사가 열린다. (031)682-3169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전시

고승진영과 함께 하는 벽화 등불

무형문화재 단청 전수조교 양선희씨 개인전

'고려불화를 보는듯 하지만 고려불화도 조선불화도 아닌 것' '무거우면서도 밝은 것'. 11월 23~29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 전수조교 양선희씨의 작품은 이렇게 묘사된다.

양씨의 두 번째 개인전 '고승 진영과 함께 하는 벽화 등불전'에는 원효 의상 지눌 보우 사명 스님 등 큰스님들의 진영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여래도 수유부처도 불행나 무 등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이 전통은 아니다. 전통을 빌려 작가의 부채질과 고승을 바라봤다. 그리고 전통의 틀 속에서 현대적인 색채 감각을 표현해 냈다. 배경도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문양도안을 사용해 그렸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전통과 현대의 두 극단적인 요소의 조화는 작가의 영원을 표현하고 대중의 바람을 담아내 위로해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양선희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과 삶을 조화시키려는 더 나아가 조화의 이상적인 모형을 불교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 자체"라고 평했다.

한편, 전시에 참여하는 관객들이 직접 영원을 담아 등불에 채색을 해 벽화를 완성해 가는 작업도 마련해 눈길을 끈다. (02)733-5322



양선희 작 '지눌 스님'.

공연

능인 스님 음성공양 心香

11월 27일 종교 국악정

서울 행복사 능인 스님이 11월 27일 대중과 함께 어울림 공연마당을 펼친다.

서울 종교 국악정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향기-心香(심향)'의 4번째 공연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대중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하나가 되어 웃으면서 삽시다'라는 컨셉으로 기획된 대중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스님은 '그리운 어머니' '방생을 합시다' 등으로 음성공양할 계획이다.

능인 스님은 "앞으로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대중으로 위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018-202-1748



11월 15일 종교 국악정에서 개최한 '心香' 3번째 공연.

김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p>BBS 5 불교방송</p> <p>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창주 FM 96.7 MHz 충청 FM 100.1 MHz</p>	<p>B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p>
--	--

<p>21일 14:05 남만리다오</p> <p>22일 11:05 아름다운 초대</p> <p>23일 10:05 BBS신생상담실</p> <p>24일 09:05 행복한 미소</p> <p>25일 21:05 영화음악실</p> <p>26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p> <p>27일 07:05 사랑의 정경다리</p>	<p>21일 21:10 한국의 명찰</p> <p>22일 02:40 불교TV스페셜</p> <p>23일 15:50 어울림마당</p> <p>24일 19:30 TV법회</p> <p>25일 08:20 산중대담</p> <p>26일 07:30 조선불교탄일사</p> <p>27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춤</p>
--	--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1월 24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점'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곡악,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풍요, 중국·타베트·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총천(11월 26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가 연예인 등 각계 인사들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수공예 조각 죽비

선원에서 참선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대중의 선을 지도할 때, 스님들의 공양 때에 쓰이는 죽비, 통대나무의 두 쪽을 갈아서 손바닥으로 치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죽비는 수행자들이 지도할 때 사용하는 법구다.

이번에 소개하는 죽비는 최고급 삼나무로 제작된 수공예 조각 죽비다. 대, 중, 소 세가지 크기가 있으며 몸체에는 음자와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특히 75cm 길이의 대형 죽비 손잡이 부분은 옹무늬가 조각돼 있어 품격을 더한다. 가격은 16만원. (02)732-1520

시골노총각의 우여곡절 맞선여행

나의 결혼원정기 감독: 황병국 출연: 수애, 정재영, 유준상 장르: 휴먼 드라마 상영시간: 120분 등급: 12세 이상

농촌을 소재로 하면 된다? 동시대의 농촌풍경을 그린 드라마 '전원일기'는 저녁 시간 가족을 안방으로 모이게 했고 순박한 농촌총각의 사랑을 노래한 영화 '너는 내 운명' 또한 영화팬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런 대세의 바통을 이은 '나의 결혼원정기'는 시골노총각들의 우즈베키스탄 맞선여행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는 국제결혼이라는 소재를 살아있는 에피소드와 흥미로운 캐릭터로 그려낸다. 서른넘어질 뉘엿뉘엿 여자 한번 변변히 사귀어 보지 못한 노총각 농사꾼 만택과 바람둥이처럼 굴지만 첫사랑의 이름을 가진 친구 희철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난다.

희철은 능수능란하게 여자들에게 다가가지만 만택은 여자 일괄도 마주보기 힘들다. 만택은 서서히 통역을 맡은 라라(수애 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라라 또한 순수한 만택이 마음에 들지만 탈

북자라는 처지로 마음을 열지 못했다.

맞선 행사가 현지에서 분란을 일으키자 한 국경부는 '참가자들 모두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택과 라라의 기약 없는 이별은 시작되는데...

낮선 문화와 언어장벽을 감수하고 국제결혼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 맞선 여행을 떠난 두 남자의 사연을 영화적 웃음과 감동으로 치부하기엔 여전히 2% 부족하지 않을까.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